

현장과 시각

씨티아트홀에 박수를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 단원들은 지난 겨울 내내 말치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전남대 정문 인근에 전용 소극장 공간을 확보한 단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부를 고용하는 대신 철거부터 무대 제작까지 모든 걸 직접 해냈다.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전용 소극장을 갖는 건 모든 연극인들의 꿈. 하지만 2년간 운영하다 문을 닫은 여러 소극장의 예에서 보듯,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극장 운영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단원들 역시 소극장 씨티아트홀 개관을 추진하면서 격려와 함께 우려의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 의기투합했다.

지난 주말 열린 씨티아트홀 개관식은 활기가 넘쳤다. 연극인들은 부러움이 담긴 덕담을 나누며 개관을 축하했다.

단원들은 의욕을 넘쳐 있다. 기획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자체 문화상품권도 개발했다. '파워 연극 시리즈'라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극장 하나 생겼다고 해서 지역 연극계가 갑자기 활기를 찾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씨티아트홀의 개관이 침체된 지역 연극계에 자극이 되는 건 분명하다.

지난해 활동이 미미했던 문예정터와 민들레 소극장, 현재 소극장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푸른 연극마을 등 지역 극장과 극단들이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면 연극계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공동예술극장의 변신이다. 개인들이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민간 소극장에 비해 공동 예술극장은 광주시 동구청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넓다.

하지만 동구청은 극장 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책정된 예산은 빈약하고 시설은 낙후돼 있다. 특히 귀에 거슬리는 음향 시설은 연극 보는 재미를 반감시킨다. 동구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 씨티아트홀의 개관은 대학가에 들어선 공연장이라는 점에서도 반갑다.

전남대 인근에 정식 공연장이 문을 연 건 13년 여만이다. 박효선씨가 이끌던 극단 토박이의 민들레소극장을 예술의 거리로 옮겨간 이후 전남대 인근은 술집, 카페, 식당만이 가득한 '문화사각지대'가 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전남대 총장이 축사를 한 이유도 대학가 문화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문화 공간을 오픈하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문을 닫는 건 쉽다. 힘겹게 심어진 나무에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며 키워가는 건 문화예술인들 뿐 아니라 관객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mekim@kwangju.co.kr

"학생 귀가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李大統領, 여아 보호·먹거리 대책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안전 문제와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무교동 여성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생쥐머리 새우깡'과 '칼날 참치캔' 등을 언급하며 식품관리 대책을 지시하는 한편 잇단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방치적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여성부 보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떡과 커피 등을 먹으면서 최근의 식품안전 사고를 대화 주제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생쥐머리, 그게 어떻게 (새우깡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말한 뒤 변태된 여성부장관이 농담조로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좋다고 생쥐를 튀겨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라고 말하자 "쥐머리는 보기가 그렇지만 (참치캔에) 칼이 들어갔다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이 농림수산물식품부에 포함되거나 그런 (식품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학교 급식을 주부들이 하는데 주부들이 단속할 필요가 있다. 섬세하고 자기 아이들 먹이듯 하니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품(범죄)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 결국

자기네들은 안 먹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두발언에서 최근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큼 어린 여자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 마중대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집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다. 빙글빙글 돌다가 문제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과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소외된 지역부터 늦게까지 학교에서 생활하고, 학교가 책임지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린 아이들, 특히 여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여성부가 여성, 청소년 안전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성부가 여성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등 성 인지와 관련된 여러 일도 해야 하지만 보다 구체적 취약한 여성들에 알뜰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2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마잉주 국민당 후보(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국민당 선거캠프에서 손을 흔들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8년만에 정권교체

총통선거 마잉주 국민당 후보 승리

3.22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승리, 국민당이 마침내 8년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했다. 향후 양안 관계 전망의 잣대로 여겨지던 유엔 가입 국민투표안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마 후보는 이날 오후 7시30분(현지 시각)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수만명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제12대 대만 총통선거 당선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 모든 국민의 승리이자 개방과 화해의 승리"라고 말했다.

세창팅 민진당 후보는 같은 시간 "선거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집계 결과 마 후보는 모두 765만8천224표를 확보, 58.4%의 득표율로 544만5천239표(41.6%)를 얻은 세창팅 민

진당 후보를 16.8%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득표 격차는 모두 221만표로 지난 2004년 3관 표 가량의 표차로 천수이볜 총통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국민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진당이 발의한 타이완 명의의 유엔가입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35.8%로 과반에 못 미쳐 자동 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당이 발의한 중화민국 명의의 유엔복귀 국민투표안 역시 투표율 35.7%로 부결됐다. 대선 투표율은 76.3%로 최종 집계됐다. 당초 선거마감 티베트 독립시위로 인한 반중 정서의 자극과 세 후보의 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율 격차가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개표 결과는 마 후보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권력교체 심리를 반영한 시계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전성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은 "티베트 시위 사태 등 민진당이 제기한 이슈들은 선거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 90% 이상은 이미 자신의 지지 후보를 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50여년간 대만을 통치해오다 2000년 민진당 천 총통에게 정권을 내줬던 국민당은 8년만에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됐다. 특히 국민당은 지난 1월 총선에서 3분의 2의 의석수를 확보한데 이어 총통 선거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을 장악,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가 오는 31일 당선증서를 교부, 마 후보가 총통 당선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5월20일 정식 제15대 총통으로 취임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라크전 5주년·부활절 맞아 세계 곳곳서 반전시위 잇따라

이라크 전쟁 발발 5주년과 부활절을 맞아 뉴욕과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 곳곳에서 반전시위가 잇따랐다.

22일 뉴욕 맨해튼에서 개최된 반전시위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전쟁 중단' 구호를 외치며 '평화의 기회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행사를 가졌다.

맨해튼 도심 3.5km 거리를 점거한 참가자들은 유니언광장 집결에 앞서 '인간사슬'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시위를 조직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 레슬리 케이건은 집회에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2차대전 참전용사인 아서 워셔먼은 "오늘 아니면 내일이 가기 전에 전쟁 희생자가 4천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서 "물론 전쟁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라크전은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비난했다.

시위대는 성조기와 이라크 국기가 걸린 모의 관을 들고 행진했으며 일부는 부시를 히틀러에 비유한 판공을 내걸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반전시위에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반전단체 소속 수백여명도 이날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본부 주변에서 이라크 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브뤼셀 경찰은 450명의 시위대를 체포했고 물대포를 동원해 나토 본부 건물로 물러드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천명 이상의 시위대가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반대한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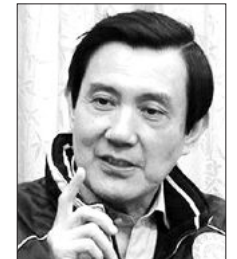
법무장관 시절 부패 척결 앞장...타이베이 시장 연임

대만 새총통 마잉주는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마잉주 국민당 후보는 귀공자풍의 준수한 외모가 돋보이는 대만 정가의 엘리트다. 유능, 청렴, 외모 등 '대중 정치인의 3박자'를 완벽하게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50년 홍콩에서 학도군 출신의 공직자였던 부친과 중앙은행 외환국장이었던 모친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대만 최고 명문인 쟈위 고교와 대만대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1974

년 국민당의 중앙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 뉴욕대학에서 석사학위,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땀다.

1981년 대만으로 돌아오자마자 총통부 제1국 부국장직을 맡아 탁월한 영어 구사력으로 장징궈 당시 총통의 영어통역과 비서로 활동하며 정식으로 대만 정계에 입문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1984년 일약 국민당 부비서장으로 입성한 그는 대륙위원회와 국가통일위원회 주요 간부를 거쳐 1993년 리덩후이 전 총통 정부에서 43세



의 나이로 법무부장에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법무장관 시절 부패척결에 앞장서 칼을 빼든 것이 지금의 마잉주 이미지를 만들었다.

1998년 타이베이시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연임을 노리던 당시 천수이볜 시장을 5% 차로 누르며 대만 정계에 돌풍을 몰고 왔다. 그는 압도적 인기도를 바탕으로 2002년엔 64.1%의 표를 얻으며 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wan-e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a teacher recruitment exam and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 033-529-0090.

Large advertisement for 'Gwan-e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Promotes a 'Public Figure Introduction' (공인중개사) exam and a 'Public Figure Introduction' (공인중개사) exam. Includes contact info: 236-2467~8.